

지하철에서 누가, 왜 자리를 양보하는가?: 양보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중심으로*

최 상 진* 박 가 열 손 영 미 이 장 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하철 내 자리양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이들 요인 중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과 '책임분산'이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양보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나보다 약한 노약자에게(노약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요인)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며(노약자 존대의식 요인) 따라서 양보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부끄럽게 느껴진다(양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 경감 요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억제요인으로는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 요인, '양보거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부감' 요인, 주변에 양보할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와 같은 '책임분산' 요인 그리고 '양보상황해석의 애매성'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추출된 유발요인과 억제요인 중 양보행동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요인들 즉,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감)' 요인과 '책임분산(책임감)' 요인이 양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적 부담감 정도가 낮고,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는 상황일수록 자리양보경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인적 부담감 정도가 높고, 책임감을 낮게 지각하는 상황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려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자리양보경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개인적 부담감 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양보, 책임감, 부담감, 노약자, 친사회적 행동, 도움행동, 이타성, 성차, 지하철

* "본 연구는 200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최상진,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choi@cau.ac.kr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서울시 교통 센서스, 1998) 지하철의 전동차 내 환경은 이용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과된 환경(imposed environment)’의 성격이 짙다. 즉, 한 개인이 지하철 문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승객은 지하철 안을 메우는 동승자들의 수와 배치 및 이들의 행동에 따라 규범적이며 순응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단 안으로 들어서면,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서 가기보다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가는 것을 당연히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의 지하철은 만원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좌석에 앉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편하게 서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서로 몸을 맞붙여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좌석에 앉아 가느냐, 서서 가느냐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정신적 쾌적 유지와 관련해 쉽게 포기하거나 남에게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출·퇴근 시간에 하차승객들이 채 지하철 문을 나오기도 전에 밀고 들어가 남보다 먼저 재빨리 자리를 확보하려는 승차승객들의 행위와 장면을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어렵게 자리를 차지한 착석 승객들의 얼굴에서 ‘아! 됐구나’라는 식의 안도와 구원의 감정반응을 종종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좌석경쟁상황은 제한된 기회구조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상황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경쟁이 심한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일단 획득한 기회를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출·퇴근시 지하철 내에서의 좌석획득의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익명의 타인에게, 그것도 다시는 보지 않을 자신과 무관한 남에게 어렵게 차지한 자리를 자의적으로 양

보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양보할 것인가, 모른척 할 것인가, 지켜야 할 것인가, 뺏겨야 할 것인가와 같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전철과 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객의 승차행동을 관찰해 보면,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하거나, 실제 잠을 청하는 학생, 책읽기나 핸드폰에 몰두하기, 친구들과 수다떨기에 몰두하기, 눈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앉은 방향의 자세 고치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노약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자리양보를 압박하거나 기대하는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연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젊은이에게 양보를 직접 말로 요구하기(지시적 강요), 신체적 접촉(치기, 건들기, 밀기 등)을 통해 자리양보 요구하기(신호적 압력), 노약자 표정·연행 연출하기(노약성 연출을 통한 양보요구·기대 암시) 등 노약자들의 자리뺏기 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자리양보를 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유교문화와 경로사상의 맥락에서 규범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리양보가 ‘나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질 때, 젊은이들은 피해의식과 부당의식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는 좌석이양의 성격이 ‘양보’가 아닌 ‘빼앗김’이 되며, 여기서 유교적 경로사상이나 노약자에 대한 ‘연민의식(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자리양보의 의미가 배반된다. 즉, 권위와 찬탈에 의한 자리빼앗기가 되는 것이다. 자리를 양보받은 노인들 중에는 자리를 양보할 때 고마움의 마음전달없이 당연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자리를 찬탈당

했다는 느낌을 더욱 짙게 가질 수 있어 노약자와 젊은이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철 내에서의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는 주로 1) 노약자는 약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약자보호의식과, 2)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대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유교도덕관에 기초하고 있다. 자리양보이유가 약자보호의식이건 노인존대윤리이건 간에 노인에 대한 자리양보행동의 정당성은 법률적 강제성이나 제약성에 기초하고 있기보다는 윤리적 당위성이나 도덕적 타당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양보행위는 법률·제도적 성격의 ‘권리나 의무’ 사항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권장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야한다(should)’라기 보다 ‘했으면 좋겠다와 하기를 권장한다(recommended and advised)’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윤리·도덕적 맥락에서의 자리양보행동은 노약자에 대한 도움 및 시혜행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양보의 수혜자인 노약자는 이러한 도움 및 시혜행동자에 대해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시혜 행동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상계(相計)시키고, 동시에 시혜자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으로 도움주고받기 행위는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 그 이유야 여하튼 자리양보의 당위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동아일보, 2001), 노인들 자신들도 ‘어른스러운 행위’를 통해 젊은이들로 하여금 경로심을 갖게끔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젊은이 편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리 ‘양보’가 아니라 ‘빼앗김’이 되고, 노인들 쪽에서도 ‘존대받기’가 아니라 ‘요구해서 빼앗기’로 타락되고 있다. 이처럼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노인

- 젊은이 간의 자기-이익추구적 상호작용이 노인 집단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젊은이들 집단 내에서도 상대를 비방하는 형태의 담론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을 통해 세대간의 불신과 갈등은 우려할 정도로 확산·강화되고 있다. 결국, 지하철과 같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공공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경험하는 불유쾌 경험들이 노인과 젊은이들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의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노약자에게는 물론 젊은이에게도 사회적 피해의식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의감(不義感)과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불행감을 조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삶의 질 하락에 의미있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이에 관여되는 심리적 과정을 현장생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자리양보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1) 자리양보 행동에 관여되는 자리양보자와 수혜자의 동기 및 심리과정을 알아보고, 2) 자리양보행동에 대한 자리양보자와 수혜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3) 자리양보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과 책임분산이 자리양보 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해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4) 자리양보를 제고시키고, 자리양보자와 그 수혜자간 상호만족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심리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를 조망하는 양극적 시각:
유교문화적 전통시각 대 서구문화적 현대시각

‘노약자에 대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의 도덕성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성을 요구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극단적 시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경로사상에 기초해 설정될 수 있는 시각의 하나는 ‘젊은이는 마땅히, 어김없이 양보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약자는 젊은이에게 자리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교문화적 전통시각에 해당한다. 그 반대편 극의 시각은 ‘젊은이라고 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약자라고 해서 자리양보를 요구할 권리나 당위는 없다’라는 것으로 서구적 현대시각에 해당한다. 앞의 논의과정에서 예시된 경우처럼 ‘자리양보’를 요구·강요하는 노약자의 행동은 전자의 도덕성에 기초할 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반면,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서있는 노약자를 보고도 양심의 가책없이 그대로 앉아있는 젊은이는 후자의 도덕성에 기초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서구문화적 현대시각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의 대중교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약자와 젊은이간의 불신성 상호갈등은 위에 제시된 양극적 시각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갈등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균적 한국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위의 두 극단을 절충한 ‘중화형(中和型)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양보관이 존재한다고 설정해 볼 수 있다. 젊은이는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는 좋은 일이므로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양보하는 것이 좋고 또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노약자들은 ‘양보는 양보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양보받을 사람의 권한에 속하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양보를 해주면 고맙게 느끼고 이를 받아드리면 되고, 만일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화의 시각에서는 양보의 행동이 자기희생, 타인봉사의 행동으로 지각된다.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약자와 젊은이 사이의 심리적 갈등은 자리양보와 관련해 바로 앞에서 언급된 양극적 시각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상충하는 양극적 시각이 생기게 된 배경은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의식구조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수용력 차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01년 초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7개국 만 9-17세 청소년 1만 여명(한국 500명 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는 문항에 대해 17개국 청소년들은 평균 72%가 존경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한국 청소년은 단지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꼴찌를 기록했다고 한다.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17개국 청소년들의 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20%가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무려 10배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동아일보, 2001). 더욱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들은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가는 70대 노인을 뒤쫓아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여대생에게 폭언을 퍼부은 60대의 노인이 분을 이기지 못한 여대생의 신고로 연행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유엔아동기금의 통계수치와 신문기사 및 윤리도덕에서의 세대차

및 그로 인한 갈등은 노인들 세대와 젊은이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충하고 있으며, 적어도 젊은이 세대에게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웃어른을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는 경로의식과 약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행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지금까지의 도덕적 교육만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철 내에서의 자리양보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상황

지하철 전동차 칸 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빈자리나 번잡하지 않은 공간으로 접근하게 되고, 동시에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서로 상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를 비롯하여 노약자의 경우,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앉아야 될 이유나 명분을 스스로 찾아내어 상대방에게 넉넉히 알아채도록 그 신호를 누출시키거나 연출하기도 한다. 자리차지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학생이나 어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는 어른들의 나이와 표정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에 동년배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누가 자리양보를 하는가 혹은 그대로 앉아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정황판단을 부단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몸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기를 요구하거나, 앉아서 독서와 같은 학습활동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 주변 연장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단히 신경써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하철 상황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으며, 행위작위자가 있고 행위수용자가 있으며, 눈치와 감정이 교류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공유되는 지하철 내 사회규범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구경꾼 압력과 구경꾼 효과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암묵적인 사회적 상황이며, 동시에 사회적 상호영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하철 내에서의 자리 양보행동은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서의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친사회적 행동 유발이 기질 대 상황이라는 결정인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Batson, Batson, Griffitt, Barrentos, Brandt, Sprengelmeyer, & Bayly, 1989).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에 이르러 기질 대 상황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유발의 예측인(예를 들면, 공감경향성, 책임감 분산, 권위주의, 외모 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찾아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조금은 실망스런 결론에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다(Batson et al, 1989). 단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람들의 특정 도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기된다(Snyder, 1993).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본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 도움행동을 예측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도움행동 중 공공상황에서 일반

인들이 가장 쉽게 행하고 있고, 행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하철¹⁾ 내의 자리 양보행동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합적 심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리양보행동’이 갖는 의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수반되어지는 행동’으로 서서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하철 내의 도움행동 즉, 자리양보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지하철 내 자리양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도움행동을 유발시키는 변인과 억제시키는 변인들을 탐색해 보고, 이들 변인이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자리양보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도움 행동과 이타성

도움 행동은 그 상위 범주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타성이라는 범주로 표현되기도 한다(김현택 외, 1997; Taylor, Peplau, & Sears, 1994). 도움행동과 관련하여 이타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타성은 자신의 이익을 지향하지 않고 자체로 목적이며, 자발적으로 행해져 타인에게는 유익하지만 행위자는 물질적 혹은 사회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담마저 감수해야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어 왔다(Bryan & London, 1970). 이러한 이타성은 친사회적 행동의 가장 순결한 형태이며, 이러한 행동의 전형적인 예로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조건없는 행동을 들 수 있으나, 경찰관이나

소방수처럼 직업적으로 타인을 돕는 일은 이타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Kearl, & Gordon, 1992).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참되게 친사회적이기 위한 세가지 조건을 Krebs(1970)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행위자는 타인 혹은 타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고자 해야 하며, 행위는 어떤 숨겨진 동기를 이행하려는 수단으로써가 아닌 그 자체가 목적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타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와 관련하여, Batson 등(1989)은 도움행동을 이타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도움행동은 그 동기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도록 의도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동(예를 들면, 도움, 위로, 공유, 협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이타성은 댓가를 바라는 의도가 없이 타인의 안녕(welfare)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움행동과 이타성은 일대일의 상응관계가 될 수 없다. 즉 도움행동은 이타성에 의해 동기화될 필요가 없으며, 이타적 동기는 꼭 도움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댓가를 바라지 않고 행한 행위가 오히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Batson 등(1989)의 입장을 수용하여, 지하철 내 자리양보는 친사회적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이타성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하철 내 ‘자리양보’ 행동을 이타성이 아닌 친사회적 행동²⁾의 범주에서 파악하여 그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 서울시 교통센서스(1998)에 의하면, 대중교통 분담율 1위를 차지하던 시내버스가 1997년도부터 지하철로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움행동을 의미하므로(Underwood & Moore, 1982; 박성희, 1996), 본 고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도움행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도움 행동 유발 요인

1970년경의 기질적·개인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는 권위주의, 자율성, 지능, 양육환경, 종교,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책임감, 복종, 의존 등의 변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 변인 자체만 가지고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명백한 예측인이 되지 못했다(Batson, Dyck, Brandt, Batson, Powell, McMaster, & Griffitt, 1988; Batson et al, 1989; Darley & Batson, 1973). 오히려 이러한 기질적 요인들은 어떤 형태의 상황에서는 도움 행동을 촉진시키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선사업에 기부할 경향성이 높지만, 이들은 타인이 자신들을 보고 있을 때에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타자지향적 민감성과 배려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부행위를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avis, 1994). 반면, 도움 행동에서의 상황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기질적 요인보다 더 예측력이 있고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Clark & Word, 1972; Darley & Latane, 1968).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 중 빈번히 인용되는 연구는 방관자 효과를 다룬 Darley와 Latane(1968, 1970)의 연구다. 이들에 의하면, 주변에 많은 방관자들의 존재는 자신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감을 덜 느끼게 만드는 책임감 분산을 유발하며, 결국 도움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주변에 방관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움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도움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움 행동에 미치는 또 다른 상황적 요인으로, 도움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비용은 금전적 비용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교

환 이론(Blau, 1964; Kelly & Thibaut, 1978)의 측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심리적 비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도울 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즉 투입되는 비용이 산출되는 결과에 비해 너무 크다면, 이러한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대표적인 예는 ‘시간의 압력’과 ‘소진(burnout)’을 들 수 있다. Darley와 Batson(197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의 압력이 높은 집단(바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바쁘지 않은 집단)보다 도움행동이 덜 나타났다. 즉, ‘돕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돕지 못한다’라는 말과 유사하다. 또한 ‘소진’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돕고 싶지만, 너무 지쳐서 도울 여력이 없다’라는 말 역시 유효한 듯하다.

Sterling과 Gaertner(1984)는 생리적 각성수준과 상황의 모호성 정도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귀인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즉, 도움을 확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저 모호성 상황)에서는 높은 각성수준정도가 도움행동을 증가시켰지만 고 모호성 상황에서는 높은 각성수준이라 하더라도 도움행동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각성수준이라 하더라도 고 모호성 상황에서는 자신의 각성수준이 높은 이유를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귀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도움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가,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가, 다른 사람은 없는가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도움행동과 밀접히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밖에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날씨, 도시 규모, 소음 등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들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

은 일반적으로 비올 때보다는 햇볕이 날 때, 그리고 밤보다는 낮에 도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음에 덜 노출 될 수록, 기분이 좋을수록 도움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한규석, 1995; 홍대식, 1996).

도움 행동에서의 성차

성역할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감정지입정도를 보이고(홍순정 외, 2001), 반응적이며, 공감적인 반면, 남성은 독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Eagly & Steffen, 1986). 이는 비교 문화적 연구 결과들에서도 나타나는 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차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존재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차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Eisenberg & Fabes, 1998).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항상 확증되는 것은 아니며, 도움행동 상황이나 연구방법 또는 도움행동 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남녀간에 차이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Eagly와 Crowley(1986)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도움 행동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인을 더 많이 도왔으며, 힘과 같은 물리적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도움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isenberg와 Fabes(1996)가 실시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도움행동의 유형과 연구방법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차가 존재함이 입증되었다. 즉, 자기보고나 타인에 의한 보고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관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경우보다 성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행동

유형에 있어서, ‘친절하게 대하기’, ‘사려깊게 행동하기’ 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도움 행동을 보이는 반면 ‘기부행위’, ‘함께 나누기’, ‘격려하기’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도움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의 도움행동 경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도움행동유형에 있어서의 남녀 간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도움행동의 유형과 상황변인에 반응하는 정도 등에 따라 남녀간 도움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수용하여, 도움행동에 대한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이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은 사람들이 자리양보 여부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고려하게 되는 대안들을 즉,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유와 양보하지 않는 이유를 탐색해 봄으로써 1) 자리양보에 관여되는 동기 및 심리과정, 2) 주변상황적 변인과 그에 따른 심리과정, 3) 자리양보에 대한 젊은 이와 노약자들 간의 태도, 그리고 4) 자리양보동기를 저하시키는 변인과 그에 따른 심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방 법

조사방법

태도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들에서 행동과 태도와 불일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규석, 1995). 특히 다른 여타 행동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이익과 손실이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태도와 불일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내 자리양보행위에 대한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경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 바, 양보한 이유와 양보하지 않은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양보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묻게 된다면 자기합리화 혹은 자기 방어적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자리를 양보한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경험을 되살려 그 이유를 말하도록 할 경우에는 일단 자리를 양보한 상황이므로 보다 덜 방어적으로 그 이유를 기술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리양보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요즘 젊은 것들’은 양보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과 ‘앉아 있고 싶은데’와 같은 개인적 이익의 딜레마를 가장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젊은 이들 즉, 10대와 20대의 사람들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까지의 젊은이들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본 연구는 지하철 내에서 실제 자리를 양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남자 49명, 여자 38명, 전체 87명이다. 이 중 2명은 48세와 39세의 남성으로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 85명의 평균연령은 22.5세였다.

조사시기 및 장소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3명의 대학원생이 각각 한 개의 지하철 노선을 할당받았으며, 조사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였다. 오전 출근시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맞추느라 설문응답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퇴근시간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응답을 위한 공간확보도 어려우며, 응답시 짜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후시간으로 하되 퇴근 시간대를 피하면서, 지하철이용 인구가 적지 않고, 이용객의 남녀노소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를 선정하였다. 지하철 노선 역시 이용 인구가 비교적 많은 1호선, 2호선 그리고 3호선을 선정하였다(한국지하철공사 통계자료, 2000).

현장조사자 교육

현장조사를 실시할 3명의 대학원생에게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첫째, ‘자리양보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자리양보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에 국한시킨다; 자리양보상황은 앉아 있다 일어난 상황으로 1) ‘여기 앉으세요’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며, 2)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난 후 다음 정류장에서도 내리지 않은 경우였다.

둘째, 조사자는 ‘지금 자리를 양보하였으며,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선택하여 본 설문지의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조사도구

먼저, 지하철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이유와 양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즉, 자리를 양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자리를 양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리양보를 하지 않았던 경험’을 회상하여 ‘그때 양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 기술하도록 하였다(복수응답가능). 다음으로 ‘방금’ 자리를 양보한 이유에 대해 6개의 보기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제시된 보기들은 2가지 절차를 통해 선별되었는데, 먼저 7명의 지하철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리를 양보한 이유에 대해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참고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이유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해석되었다. 먼저, ‘의미나 내용’ 면에서 유사한 응답 내용들을 소다발로 묶은 후 다시 의미 및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하위 다발을 중다발로 묶고,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 대다발로 묶어나가는 점진적 확대다발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는 심리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는 내용을 묶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 응답도 심리적 성격 면에서 검토하여 상이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발을 해체·재

구성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차원의 응답범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3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위의 모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 비교과정을 거쳐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하위 범주에 따른 반응집계를 통합하여 상위 범주별 반응을 집계하였다. 끝으로, 어떤 이유들이 양보행동에 가장 중요한 유발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자리양보행동에 대한 유발요인과 억제요인

표 1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심리(유발요인)’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보다 약하다’,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와 같이 ‘노약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자리양보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전체 121응답 중 3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와 같은 ‘노약자 존대의식’ 요인에 해당하는 응답이 전체의 27.3%를 차지하였으며, ‘양보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외부시선 부담감’ 요인은 전체 응답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자리양보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반면 양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와 같이 ‘양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 경감’ 요인이 전체 응답 중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심리(억제요인)’에 대해 응답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집까지 갈 길이 멀어서’,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거나

표 1.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심리

내 용	빈도수	퍼센트
노약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41	33.9%
나보다 약하다	21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겠지	9	
나의 부모,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난다	9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늙기 때문에	3	
노약자 존대의식	33	27.3%
당연한 일이다	14	
그렇게 교육받았다	12	
그것이 예의이다	7	
양보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외부시선 부담감	24	19.8%
주위의 시선 때문에	21	
예전에 창피당한 적이 있다	3	
양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 경감	18	14.9%
마음이 편하다	12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5	
기분이 좋아진다	1	
기타	5	4.1%
전 체	121	

무거워서'와 같은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 요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리를 양보하기도 전에 미리 양보해달라는 몸짓이나 말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거나,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도 힘든 척 할 경우 '양보거래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부감'이 생겨 자리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16.2%를 차지하였으며, '자리를 양보할 만큼 나이가 많은지', '자리양보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지' 등과 같은 '양보 상황해석의 애매성' 요인이 117개의 응답 중 9(7.7%)개로 나타났다. 또한 자리를 양보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존재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변에 나 이외에 자리를 양보할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책임분산'요인, 7.7%), 그리고 양보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거나, 양보를 거절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에 대한 염려('주변인의 부정적 평가부담'요인, 7.7%) 등이 자리를

표 2.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심리

내 용	빈도수	퍼센트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	55	47.0%
몸이 피곤해서/아파서	44	
갈 길이 멀어서	6	
짐이 무겁거나 많아서	5	
양보거래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부감	19	16.2%
자리양보를 강요할 때	14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힘든 척 할 경우	3	
값비싼 옷 등을 입은 아줌마한테는 자리양보하기 싫었다	1	
나이도 50정도 밖에 안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힘든 척해서	1	
주변인의 부정적 평가 부담	9	7.7%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4	
모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일어서는 것이 쑥스럽다	3	
양보했다가 거절당하면 남들 보기 민망하다	2	
양보상황해석의 애매성	9	7.7%
어르신인지 아닌지 고민될 경우	7	
너무 정정해 보여서 실례가 될 것 같아서	2	
책임분산	9	7.7%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양보할 것 같아서	5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쳐서	2	
다른 사람이 먼저 양보해서	2	
비의도적 양보 불가피 상황	7	6.0%
주위에 노약자가 계신 것을 모르고	4	
만원이라 양보하기가 어려워서	3	
기타	9	7.7%
합 계	117	100%

양보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유 한가지를 택하도록 한 결과이다. 그 결과,

표 3은 6개의 보기 중 ‘방금’ 자리를 양보한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항

표 3. 자리양보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선택 결과

문항	빈도	퍼센트	누적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49	57.6	57.6
그냥 앉아 있으면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9	22.4	80.0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측은한 마음에	7	8.2	88.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2	2.4	90.6
그냥 앉아 있으면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1	1.2	91.8
기타	7	8.2	100.0
합 계	85		

이 자리양보행동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57.6%), ‘그냥 앉아 있으면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와 같이 ‘주변인의 부정적 평가 염려’요인이 전체 응답의 22.4%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측은한 마음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리양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던 표 1의 결과와는 일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표 1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던 반면 표 3에서는 노약자 존대의식에 해당하는 도덕적 당위성이 자리양보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도덕적 심리/감정과 도덕적 당위성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노약자에게 자리양보를 한 이유에 대해 보기를 제시하는 것 없이 이유를 자유기술하도록 한 면접상황은 보기를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도덕적 당위성 선택상황에 비해 이성적·인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오히려 즉각적인 감정 및 심리상태 즉, 도덕적 감정 및 심리상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성적인 도덕적 의식을 활성화시켰을 경우 도덕적 당위성이 자리양보행동을 결

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자리양보행동은 도덕적 심리/감정적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심리와 양보하지 않는 심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에 대한 내용분석결과를 ‘일상화된 도덕적 감정’과 ‘이성적·의식적인 도덕적 당위성’의 상위틀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자리양보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심리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리양보행동에 대한 유발요인으로 ‘노약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양보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서있는 것조차 힘들어하거나 피곤한 모습이 역력한 노약자의 늙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노약성(老弱性)을 통해 미래의 나의 모습과 나의 부모님 등을 연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안쓰러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도록 한다. 즉, 젊은이들이 노약자들의 노약성을 자연스럽게 탐지하였을 때 안쓰러운 마음은 일어나며, 이러한 감정경험이 자리양보행동을 촉발시킨다.

노약자를 존대해야 한다는 의식 역시 자리양보

에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한국인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인 노약자 존대의식이 항상 자리양보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라 노약자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약자들의 노약성이 자리양보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탐지가 될 경우 젊은이들은 안쓰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기꺼이 자리양보를 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그러나 노약자들은 가끔 안쓰러워하는 심리감정적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과잉-꾸밈행동, ‘자기 허약성·노약성 누출 행동’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도 하는 바, 예컨대, 별로 힘들거나 아파 보이지 않는데 그런 척하며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나이가 별로 들어보이지 않는데 나이든 척하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지 않는데 불편한 척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이 자리양보자에게 꾸밈행동으로 탐지되지 않는다면 자리양보행동이 일어나겠지만 탐지될 경우 역시 심리적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양보행동을 할 마음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약자라는 이유로 자리양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즉, 큰소리로 ‘요즘 젊은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와 같이 면전에 대고 폭언을 한다든지,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다리를 툭툭치는 등과 같은 행위 역시 양보하고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결국 노약자들이 ‘젊은이는 마땅히, 어김없이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행동과 태도를 보이게되면 젊은이들은 오히려 심리적 거부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리양보행동을 행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표 2 참고). 다시 말해 젊은이들이 이성적으로 노약자 존대의식을 활성화시켰다 하더라도 노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강압적-암묵적으로 요구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할 수 있어도 하기 싫다’는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경험하고, 이것은 자리양보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구체적인 자리양보현장상황에서 노약자에게 자리양보행동 그 자체를 촉발시키는데 1차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심리는 노약자의 ‘노약성’에 대해 **안쓰러워하는 심리감정적 마음**이며, 그 다음으로 노약자에 대한 ‘노약자이기 때문에 **양보해야한다**’는 이성적인/도덕의식·노약자 존대의식의 작용임을 함축한다. 즉, 자리양보현장상황에서는 안쓰러워하는 심리감정적 마음경험이 도덕의식을 앞서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명분-도덕적으로는 수용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노약자 또는 어른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한국인의 도움행동의 심리적 원천은 상대방의 고통과 불행을 내 아픔으로 체험하는 ‘심리적 감염’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리를 양보하는 데 있어 ‘양보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외부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사회적(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긍정적인 평가 지향적 행위를 추구한다. 이러한 행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기본적 심리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 동기이며, 두 번째는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체면지향 동기이다 (이석재, 최상진, 2001; 최상진, 2000). 이와 접목하여 살펴보면, ‘양보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외부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양보에 미치는 심

리작용은 결국, 주변에 자리를 양보할만한 젊은 이들이 없고, 노약자가 자기 근처에 서있는 경우 주변인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 타인의식체면이 민감하게 활성화되고, 이때 자리양보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고 창피성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러한 체면손상을 방어하고 창피성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양보를 하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 있어 역시 ‘주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주변에 양보할만한 젊은 이들이 비교적 많이 있거나 노약자가 자기 근처에 서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리양보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 ‘튀는/눈에 띄는’ 행동이 되며, 이러한 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주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심리작용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젊은이들이 양보행동을 촉발 또는 억제시키는데 관여되는 개인 내적 및 주변상황적 변수를 살펴보면, ‘몸이 피곤하거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또는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워서’와 같이 자리를 양보했을 경우 수반되는 신체·심리적 부담감이 클 때 양보행동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너무 정정해 보여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일어서야 할만큼 노약자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와 같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경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타인들이 어떤 눈치도 주지 않게 되면 자리양보행동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양보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쳐서’와

같은 ‘양보책임 분산’ 요인 역시 자리양보행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 역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20대까지의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2는 1) 자리양보억제요인들 중 ‘몸이 피곤하거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또는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워서’와 같은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정도)’와 ‘주위의 다른 사람이 양보할 것 같아서’와 같은 ‘책임 분산(책임감 정도)’이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 이들 변인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정도에 있어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연구 2는 서울 소재 C대학과 경기도 소재 K대학에서 2002년 1학기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였던 전체 233명(남자 134명, 여자 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졌다. 이들의 학년분포는 1학년이 104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63명, 4학년이 48명이었다.

독립변인 선정

추출된 요인 중 연구 2에서는 ‘몸이 피곤하거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또는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워서’와 같은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³⁾’과 ‘주위의 다른

3) 연구 1의 결과, ‘몸이 피곤해서’, ‘갈 길이 멀어서’,

사람이 양보할 것 같아서'와 같은 '책임분산'⁴⁾ 두 요인만을 선별하여 자리양보행동 경향성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자리양보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노인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자리양보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리양보를 했다'라는 '전통 및 예절'의 학습에서 비롯된 도덕적 감정경험들로 판단되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사람들이 자리양보여부를 판단할 때 자신의 신체·심리적 조건, 주변상황 및 노약자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발요인보다 억제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리양보행위를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 보다 함의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둘째, 연구 1을 통해 자리양보 억제요인들 중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이하 개인적 부담정도)' 요인과 '책임분산(이하 책임감 정도)'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

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움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책임감 분산'과 '도움행동에 대한 비용/ 댓가'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구 1의 기술통계치와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리양보'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될 때 직면하는 일반적인 고민은 '주변에 양보할 사람이 없는가'와 '도움행동을 할만큼 나의 조건이 괜찮은가'로 요약되며, 이들 두 요인들 간의 관계성 검토를 통해 지하철 내 자리양보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목적을 위해 개인적 부담정도와 책임감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삼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 개인적 부담정도는 집까지 5개의 역이 남은 경우를 개인적 부담이 낮은 상황(개인적 부담 저)으로, 11개의 역이 남은 경우를 개인적 부담이 높은 상황(개인적 부담 고)으로 설정하였다. 책임감 정도는 주변에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책임감이 높은 상황(책임감 고),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책임감이 낮은 상황(책임감 저)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독립변인들을 각각 2 수준으로 하여, 2×2의 반복측정설계를 하였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A는 현재 한국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는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11개의 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마침 주변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 그곳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아저씨들과

'집이 무겁거나 많아서' 등이 개인적 부담 정도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이들 중 '도착지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남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판단되는 바, 연구 2에서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이하 개인적 부담정도)을 '도착지까지 남은 거리'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4)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의식, 주변에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 판단 등이 타인의 시선 의식정도에 해당하는 응답들이다. 이들 중 주변에 양보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즉,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아주머니, 아저씨들만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자리 양보에 대한 '책임분산'으로 명명,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전철은 다음 역을 향해 출발했고, 다음 역에 도달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전철에 올라타셨습니다.

조사대상자는 4가지 조건의 시나리오(개인적 부담 고-책임감 고, 개인적 부담 고-책임감 저, 개인적 부담 저-책임감 고, 개인적 부담 저-책임감 저)를 제시받았으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이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1)’에서 ‘양보할 것이다(7)’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의 순서를 무선화시켰다.

이상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적 부담 정도와 책임감 정도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에 대한 남녀간 응답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중다변량 분석과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개인적 부담감과 책임감정도가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 정도와 개인적 부담정도에 따라 자리양

보경향성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F(1, 286) > 11.63$ 으로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즉 자리양보를 해야 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개인적 부담감을 적게 느낄수록 자리를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M=6.31$), 자리를 양보해야 할 책임감을 적게 느끼고, 자신의 개인적 부담감이 높을수록($M=3.83$)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 경험하고, 개인적 부담감을 많이 경험한 상황(책임감 고/부담감 고), 그리고 책임감을 적게 경험하고, 부담감을 적게 경험한 상황(책임감 저/부담감 저)은 평균이 각각 5.27, 5.2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과 표 5 참고).

책임감 정도와 개인적 부담감이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미치는 주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주변에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는 상황($M=5.79$)이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상황($M=4.52$)보다 더 자리를 양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짐까지의 거리가 적게 남아 있을 때보다($M=5.76$) 많이 남아있을수록($M=4.55$)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4 참고).

표 4. 책임감 정도와 개인적 부담정도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의 반복측정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합(SS)	자유도(df)	평균자승화(MS)	F
책임감 정도	467.47	1	467.47	307.25**
부담감 정도	423.18	1	423.18	217.45**
책임감×부담감	8.20	1	8.20	11.63**
오차	1147.46	286	4.0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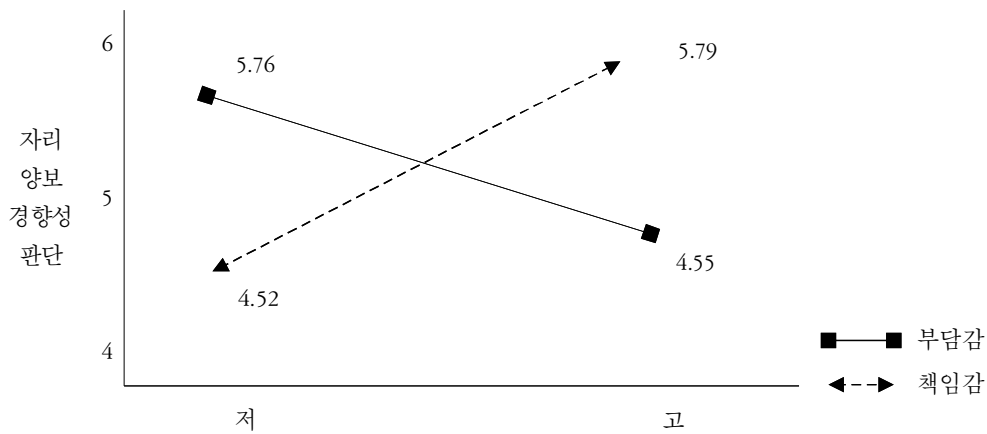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적 부담감과 책임감이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표 5. 책임감 정도와 개인적 부담정도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부담감 \ 책임감	고	저	계
고	5.27(1.36)	3.83(1.51)	4.55(1.24)
저	6.31(1.16)	5.21(1.64)	5.76(1.20)
계	5.79(1.03)	4.52(1.31)	

* ()안은 표준편차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대한 남녀간 차이검증

책임감 정도(고/저)와 개인적 부담정도(고/저)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대한 남녀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책임감 고/부담감 저’ 상황과 ‘책임감 저/부담감 저’ 상황에서의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대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즉,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있고(책임감 고),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부담감 저)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M=6.49)가 남성응답자(M=6.20)에 비해 자리양보 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주변

에 자기 또래의 학생들이 앉아 있고(책임감 저), 집까지의 거리가 적게 남아있는 상황(부담감 저)에서 역시 남성응답자(M=4.99)에 비해 여성응답자(M=5.53)가 자리양보경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7은 책임감정도와 부담감 정도가 변화함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정도의 변화량을 살펴보고, 이들 변화량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이다.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낮은 상황으로 변화함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의 판단변화량에서만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간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리양보 경향성 판단정도가 부담감 정도에 따라 유의미하

표 6. 4가지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자리양보경향성판단에 대한 남녀간 차이검증

조건	집단	평균	자유도	t
책임감 고/부담감 고	남	5.36	285	1.31
	녀	5.14		
책임감 고/부담감 저	남	6.20	280.7	-2.20*
	녀	6.49		
책임감 저/부담감 고	남	3.87	285	.633
	녀	3.76		
책임감 저/부담감 저	남	4.99	285	-2.75**
	녀	5.53		

* $p < .05$, ** $p < .01$

표 7. '책임감 고/저'와 '개인적 부담 고/저'로의 변화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의 변화정도에 대한 남녀간 차이검증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책임감	남	1.34	1.25	285	1.171
(고-저)	여	1.17	1.21		
부담감	남	.98	1.54	284.74	-3.768**
(고-저)	여	1.56	1.06		

* $p < .05$, ** $p < .01$,

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응답자들은 자리양보여부를 판단할 때 부담감 정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2를 통해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 정도와 책임분산(책임감) 정도에 따라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이것들이 성차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부담 정도와 책임감 정도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주변에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앉아 있을 때 보다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을 때 자리

를 더욱 양보하며, 집까지의 거리가 적게 남아 있을 때 더욱 자리 양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책임감이 높고, 부담감이 낮은 상황이었을 때 자리양보경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책임감이 낮고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 정도와 책임분산(책임감 정도)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에 대한 남녀간 판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 연세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있고(책임감 고),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개인적 부담감 저)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욱 자리를 양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또래

의 학생들이 앉아 있고(책임감 저), 집까지의 거리가 적게 남아있는 상황(개인적 부담감 저)에서 역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리양보경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책임감 고/개인적 부담감 고’ 그리고 ‘책임감 저/개인적 부담감 저’상황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셋째, 책임감 정도와 개인적 부담감 정도가 고에서 저로 변화함에 따라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의 변화량이 남녀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적 부담감 정도’가 고에서 저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논의

지금까지 자리양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탐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리양보에 관여되는 동기 및 심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리양보동기를 저하시키는 노약자들의 행동 및 심리과정과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 및 심리반응을 알아봄으로써 자리양보에 대한 노약자와 젊은이 간의 태도차이를 살펴보고, 그 외 자리양보에 관여되는 주변상황적 변인이 자리양보행동을 유발하는데 미치는 심리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리양보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감)과 책임분산(책임감정도)가 자리양보경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들은 지하철에서의 자리양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는데, 자리양보를 바라보는 노약자와 젊은이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그 첫 번째이다. ‘젊은이는 마

땅히, 어김없이 양보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약자는 젊은이에게 자리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노약자의 유교문화적 전통 시각과 ‘젊은이라고 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이라고 해서 자리양보를 요구할 권리나 당위는 없다’는 젊은이의 서구문화적 현대시각이 상충할 때, 자리양보상황에서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며, 이러한 불유쾌한 경험들은 결국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시키고, 나아가 세대간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갈등 및 거부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리양보에 대해 극단적인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 노약자와 젊은이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상호 조망·수용하는 것으로의 관점 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약자들은 ‘양보는 양보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양보받을 사람의 권리에 속하는 일은 아니므로, 양보를 해주면 고맙게 느끼고, 만일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으로서의 이동을 유도하고, 젊은이는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므로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없는 한 양보하는 것이 좋고 또 해야한다’는 관점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데 나보다 더 힘들겠지’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노약성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끼며 심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리양보행동에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son et al, 1988; Miller, Eisenberg, Fabe, & Sgekk, 1996; 박가열, 1995; 박성희, 1996). 또한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해 보았을 때, 정서감응성, 정

서적 공명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이 인지적 요소들에 비해 상관이 높으며(Davis, 1994), ‘관점취하기’와 같은 인지적 요소는 친사회적 행동과 직접적인 상관은 낮으나, 공감적 정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 1996). 따라서 자리양보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약자들의 입장에 대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하여 안쓰러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피곤하거나 짐까지의 거리가 많이 남아서(개인적 부담정도가 클수록), 주위에 양보할만한 사람이 있어서(책임감 정도가 낮을수록) 자리양보행동경향성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것들은 추구하고자 하며,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들은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자기-이익(self-interest)의 기본가정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Miller, 1999; Perloff, 1987). William Charlesworth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갈등관계는 자기-이익과 이타성과의 경쟁이 놓여져 있다고 하였다(Perloff, 1987).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인 당위성과 ‘지금 내가 피곤하고, 자리양보를 하면 짐까지 너무 오랫동안 서서 가야 한다’는 자기-이익의 문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행동이 결정되어지는데, 주로 자기-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당위성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기-이익의 중요성이 표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양보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양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응답자들이 남성응답자들에 비해 부담감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리양보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리양보행동을 촉진시키고자 할 때 여성에게 소구하는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을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한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로, 연구 1에서는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사집단이 전체 지하철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연구 2에서 역시 특정 대학의 심리학개론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즉, 양보에 수반되는 당사자의 신체·심리적 부담감(개인적 부담감)과 책임분산(책임감정도)에 따른 자리양보경향성판단을 측정함에 있어, 시나리오를 이용함으로써 가상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리양보경향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장면에서 자리양보할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4가지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차례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들이 연구자의 요구특성에 따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하면서 변화시켰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응답자의 태도 및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끝으로, 자리양보행동의 유발요인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던 요인들 예컨대, 나보다 약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노약자에 대한 안쓰

러운 마음' 요인과 양보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양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 경감' 요인과 자리양보행동의 억제요인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던 요인들 예컨대, 자리양보를 강요함으로써 야기되는 '양보거래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부감'과 모두들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일어서는 것이 속스럽다와 같은 '주변인의 부정적 평가 부담' 요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상호수용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현택, 박동건, 성한기, 유태용, 이순목, 이영호, 진영선, 한광희, 황상민 (1997). *심리학: 인간의 이해*. 서울: 학지사.

동아일보. 한국 청소년 어른 존경심 亞·太 지역 17국중 꼴찌. 2001.10.10

박가열 (1995). 공감경향성, 정수준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교육학연구*, 34, 143-166.

서울시 교통센서스 (1998). 통계자료.

이석재, 최상진 (200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65-83.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지하철공사 (2000). *한국지하철공사 통계자료*.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홍대식 (1996). *사회심리학*. 서울: 양영각.

홍순정 (2001). *여성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Batson, C. D., Batson, J. G., Griffitt, C. A., Barrentos, S., Brandt, J. R., Sprengelmeyer, P., & Bayly, M. J. (1989). Negative-State Relief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22-933.

Batson, C. D., Darley, J. M., & Coke, J. S. (1978). Altruism and human kind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helping behavior. In L. Perwin & M. Lewis(Eds.)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psychology*, NY: Plenum.

Batson, C. D., Dyck, J. L., Brandt, J. R., Batson, J. G., Powell, A. L., McMaster, M. R., & Griffitt, C. (1988). Five studies on two new egoistic alternatives to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2-77.

Blau, P.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Wiley.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Bryan, J. H., & London, P. (1970). Altruistic behavior by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73, 200-211.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Darley, J. M., & Batson, C. D. (1973). From Jerusalem to Jericho: A study of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variables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00-108.

Darley, J., & Latane,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377-383.

Eagly, A. H., & Steffen, V. J. (1986). Gender and

-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 309-330.
- Grusec, J. E. & Redler, E. (1980). Attribution, Reinforcement, and Altruism: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25-534.
- Hoffman, M. L. (1975). Altruistic behavior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937-943.
- Kearl, M., & Gordon, C. (1992). *Social Psychology: Shaping Identity, Thought, and Conduct*. Allyn & Bacon, 81-82.
- Kell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Y: Wiley.
- Krebs, D. L. (1970). Altruism: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73, 258-302.
- Latane, B., & Darley, J. M. (1968). Group inhibition of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15-221.
- Miller, D. T. (1999). The norm of self-interest. *American Psychologist*, 54, 1053-1060.
- Miller, P. A., Eisenberg, N., Fabes, R. A., & Shell, R. (1996). Relations of moral reasoning and vicarious emotion to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oward peers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10-219.
- Perloff, R. (1987). Self-interest and personal responsibility redux. *American Psychologist*, 42, 3-11.
- Stering, B., & Gaertner, S. L. (1983). The attribution of arousal and emergency helping: A bidirectional proc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586-594.
- Taylor, S., Peplau, L., & Sears, D. (1994). *Social Psychology*. NJ: prentice-Hall.
- Underwood, B., & Moore, B. S.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1 차원고접수일 : 2002. 12. 05.
최종원고접수일 : 2003. 5. 10.

Who concedes seat to the old and the weak in subway? And Why?: Focused on inductive factors and inhibitory factors

Sang Chin Choi Ka Yeul Park Young Mi Sohn Jangj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wo main purposes; The first was to explore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conceding seats to the old or the weak in subway(concessive action). The second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and the responsibility had on concessive action and it's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of study 1 showed that affective empathy, morality, and negative-state relief were important inductive factors, while 3 factors were revealed as important inhibitory factors for the concessive action; psychological burden, repulsion for coercive demand for conceding seats and vagueness of concession situation. In study 2, We could find the fact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and the responsibility had a main effect on the concessive action. The more participants felt the psychological burden, they were likely to evaluate that the tendency to concessive action would be decreased. And the more participants felt the responsibility, they were inclined to evaluate that concessive action would be increased. Secondly, the interaction effect was also revealed: On the situation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was high and responsibility was low, participants judged that people tended not to concede seats. Finally, We were able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Specifically, Judging the tendency to concessive action, women were more responsive to the psychological burden than men.

key words : concession, responsibility, burden, prosocial behavior, altruism, gender difference, subway